

〈변강쇠가〉의 성 담론 양상과 의미

이정원*

— <차 례> —

1. 서론
2. 성과 성욕에 대한 공동체의 공포
3. 공동체의 폭력에 대한 개인의 원한
4. 결론: 치상(治喪)의 축제적 성격

〈국문초록〉

〈변강쇠가〉 연구사에서 단절적인 서사 구조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 논문은 〈변강쇠가〉를 성과 성욕에 대한 문학적 담론으로 간주하여 구조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했다.

〈변강쇠가〉에서 옹녀를 내쫓고, 변강쇠를 죽이는 데에는 성과 성욕에 대한 공동체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즉 음란한 여성 앞에서 남성은 자기 주도권을 상실하고 결국 공동체가 파멸한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옹녀를 쫓겨나는 것이다. 옹녀를 교화할 수 없는 괴물로 다루었던 방식은 변강쇠의 징치 과정에서 반복된다. 변강쇠의 성욕은 사회적 불건전함의 표지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옹녀나 변강쇠에 대한 징치는 현재의 죄가 아니라 미래의 위협에 대한 방제의 성격을 띤다. 육체적 성과 성욕에 대한 이성적 통제는 불가능하는 공동체의 공포가 서사에 반영된 것이다.

한편 〈변강쇠가〉의 후반부는 개인의 욕망과 공동체의 폭력 사이의 긴장을 서사화한다. 변강쇠는 죽으면서까지도 성적 집착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이 징벌의 완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공동체의 폭력을 구체화함으로써 저항의 명분을 제시한다. 이 저항은 치상 과정에 나타나는 윤리적 딜레마에서 구체화된다. 즉 치상이라는 윤리적 행위를 위해 옹녀는 성을 개방해야 하고, 사내들은 성욕을 채우려 한다. 이런 딜레마는 공동체의 규범도 개인의 욕망

* 경기대학교

처럼 상대적일 수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치상 과정은 그런 딜레마가 성욕을 지닌 모든 인간의 보편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치상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강쇠의 원한에 공감하고, 또한 자신의 음욕에서 파괴의 명분을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변강쇠의 저주가 위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성욕과 규범 사이의 긴장, 그리고 그것이 빚어내는 공포가 자리잡고 있다.

한편 <변강쇠가>의 치상 장면은 매우 유쾌하게 그려져 있다. 이것은 변강쇠의 저주가 공동체 권력에 대한 저항과 탈주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또한 저주의 평등함 속에서 사회적 위계는 무너지고 축제의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주제어 변강쇠가, 성, 죽음, 도덕, 딜레마, 공포

1. 서론

수신(修身)을 개인이 지향해야 마땅한 규범으로 인정하는 조선 사회에서, <변강쇠가>는 매우 이질적인 텍스트이다. 가령, <변강쇠가>에서는 남자 주인공뿐만 아니라 여자 주인공까지 음욕의 화신으로 그려져 있고, 인물 됴됨이를 따지지도 않은 채 두 남녀는 사랑을 나눈다. ‘성’과 ‘성욕’에 대한 파격적인 형상화는 인물 형상이나 사건 전개 과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죽은 변강쇠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윤리적 의무를 위해 아내인 옹녀는 열부(烈婦)되기를 포기한다. 자신의 몸을 도구로 삼아 아내된 도리를 다하겠다는 모순된 발상은 이 작품의 후반부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설정인데, 여기에 많은 남성들이 반응하고 죽어나가면서 ‘성’과 ‘성욕’에 대한 문학적 탐색은 진행된다. 이처럼 <변강쇠가>는 특유의 형상화를 통해 성이나 성욕에 대한 당대인들의 입장과 고민, 그리고 통찰을 담은 일종의 성 담론 텍스트로 이해된다.

이질적인 성 담론이 담겨 있는 것이 <변강쇠가>의 중요한 특징 중 하

나임은 연구사 초기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가령 <변강쇠가>에 대한 초창기 연구자라 할 이명선은 <변강쇠가>에 대해 ‘음란한 사실이 많고, 옹녀도 음탕한 성격의 소유자다.’고 소개했다.¹⁾ 이후 <변강쇠가>의 성 담론은 조선 후기 사회의 갈등 국면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로 이해되어²⁾, 많은

- 1) 이명선, 『조선 연문학(軟文學)의 최고봉 <변강쇠전>』, 『신천지』 제4권 제6호, 서울신문사, 1949, 7, 197~200쪽. 박관수, 『<변강쇠가>의 음란성 재고』,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320쪽에서 재인용.
- 2) 이 분야의 주요 논저는 다음과 같다. 서종문, 『변강쇠歌 研究』,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5, 1~101쪽; 박경신, 『무속제의(巫俗祭儀)의 측면에서 본 <변강쇠가>』,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 1~116쪽; 이국자, 『변강쇠가 - 해석서론 -』, 『인문논총』 15,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85, 147~178쪽; 김종철, 『19C. 판소리사와 <변강쇠가>』, 『고전문학연구』 3, 한국고전문학회, 1986, 90~122쪽; 정병현, 『변강쇠가에 나타난 신재효의 현실인식』, 『한국언어문학』 24, 한국언어문학회, 1986, 181~192쪽; 전신재, 『<변강쇠가>의 비극성』, 『선청어문』 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103~124쪽; 박일용, 『<변강쇠가>의 사회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회, 1991, 170~200쪽; 김종철, 『<변강쇠가>의 미적 특질 - 괴기미 추구와 관련하여 -』, 『판소리연구』 4, 판소리학회, 1993, 275~316쪽; 이강엽, 『신재효 <변강쇠가>의 성과 죽음의 문제』, 열상고전문구 6, 열상고전문구회, 1993, 196~223쪽; 강진옥, 『변강쇠가 연구 2 - 여성인물의 ‘쫓겨남’을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13, 이화어문학회, 1994, 197~217쪽; 박관수, 『<변강쇠가>의 음란성 재고』,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319~340쪽; 윤분희, 『<변강쇠전>에 나타난 여성인식』, 『판소리연구』 9, 판소리학회, 1998, 325~349쪽; 최혜진, 『<변강쇠가>의 여성중심적 성격』, 『한국민속학』 30, 한국민속학회, 1998, 387~412쪽; 김경미, 『고소설 남성 인물의 형상화 - <변강쇠가>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7, 이화어문학회, 1999, 75~91쪽; 정인혁, 『<변강쇠가>의 구조 연구』, 서강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0, 1~71쪽; 서유석, 『<변강쇠가>에 나타난 기괴성의 구원 양상과 의미』, 경희대 대학원 석사 논문, 2003, 1~100쪽; 정지영, 『<변강쇠전>-조선후기 성 통제와 하층여성의 삶』, 『역사비평』 65, 역사비평사, 2003, 352~370쪽; 정하영, 『<변강쇠가>성담론의 기능과 의미』,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167~198쪽; 최경환, 『<변강쇠가> 연구 -선택과 배치의 담화전략-』, 『어문학논총』,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6, 229~244쪽; 김창현, 『<변강쇠가>, 텍스트의 인물형상과 그 의미』, 『국제어문』 38, 국제어문학회, 2006, 225~253쪽; 이주영, 『<변강쇠가>에 나타난 강쇠 형상과 그에 대한 적대의 의미』,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2008, 5~33쪽; 이주영, 『기괴하고 낯선 몸』으로 <변강쇠가> 읽기, 고전과 해석 6, 고전문학한문학회, 2009, 47~75쪽; 정환국, 19세기

연구자들은 음란한 주인공을 내세워 사회 갈등의 원인을 호도하는 서술자의 편향된 태도를 지적하였다. 이런 연구 경향은 어느 연구자가 지적한 것처럼 “하층민의 빈곤을 개인의 나태와 무지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은폐하려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울을 벗겨내고, 조선 후기 하층민의 삶을 사회,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당위적 원칙에 입각한 것”³⁾이라 할 수 있다.

<변강쇠가>의 성 담론을 텍스트 표층에 있는 ‘징음(懲淫)’이나 ‘호색(好色)’에 대한 경계라는 교화의 논리에서 벗어나 사회 갈등에 대한 지배층의 문학적 대응으로 이해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간주된다. 또한 이런 성 담론의 미적 범주를 ‘기괴미’로 정리하고 여기서 실전의 원인이나 향유층의 혼란을 읽어낸 연구⁴⁾는 보다 진전된 성과로 인정된다.

한편 이런 연구 경향과는 달리 <변강쇠가>에서 성 담론은 “독자의 흥미를 끌어내는 유도적 장치”일 뿐이며 이 작품의 핵심은 ‘강쇠의 장승 훼손과 그로 인한 죽음’이라는 연구 경향도 있다.⁵⁾ 장승 동티 사건이 <변강쇠가>의 핵심 사건이라는 주장은 몇 가지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다. 먼저 현재 전하는 신재효본 <변강쇠가> 이전의 <변강쇠가>에서는 음란물로서의 성격이 뚜렷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인정된다.⁶⁾ 또한 이 작품의 핵심 사건이 성적 일탈이라면 옹녀 또한 징치를 당했어야 하는데 변강쇠만 징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253~287쪽.

3) 박일용, 앞의 논문, 186쪽.

4) 김종철(1993), 서유석(2000), 이주영(2008, 2009), 정환국(2009).

5) 대표적 연구자는 정하영(2005)이다.

6) 이는 송만재의 <관우회>, 이유원의 <관극팔령>, 김동욱 채록본 <변강수 설화>, 그리고 서도 창본인 오연화의 <변강쇠 타령> 사설 등을 검토한 결과이다. 박관수(1996), 323~331쪽. 정하영(2005), 187쪽.

벌을 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인정된다.⁷⁾ 마지막으로 전반부의 웅녀 이야기와 후반부의 강쇠 치상(治喪) 이야기가 구조적으로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된다.⁸⁾

그러나 신재효 개작 이전에 <변강쇠가>의 모습이 어떠하든, 음란 사설과 치상(治喪) 사설이 <변강쇠가>의 전후반으로 짜여져서 전승된 것이 사실이므로, 음란 사설을 장승 훼손 사건을 위한 유도 장치로만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로 보인다. 오히려 그런 평가는 단절적으로만 보이는 <변강쇠가>의 서사 구조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아직도 부족했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이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야말로 <변강쇠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까닭에 연구사 초기부터 <변강쇠가>의 구성은 여러 각도에서 해명되어 왔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형성 과정’의 특징으로 이를 설명한 경우이다. 이는 연구사 초기에 두드러졌다. 가령, 서종문은 전후반부를 ‘유랑민의 생활상과 유랑상의 투사’로 이해하여, 구성의 문제를 제재의 차원에서 해명했다.⁹⁾ 무속제의의 측면에서 이 작품을 본 박경신은 <변강쇠가>의 전반부가 장승의 신성(神聖)에 대한 서사적 풀이이고, 후반부는 그러한 제의에 뒤따랐던 놀이 과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¹⁰⁾ 서종문과 박경신의 논의는 각각 판소리 자체의 기원과 <변강쇠가>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성과로 간주된다.¹¹⁾ 그러나 이 논의

7) 정하영(2005), 179쪽.

8) 정하영은 이에 대해, 웅녀의 상부살을 계기로 부각된 음란 사설들은 변강쇠의 장승 동티 사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에피소드로서, 부분의 독자성 원리에 따라 과장되었을 따름이라고 분석했다. 정하영(2005), 175쪽.

9) 서종문, 앞의 논문, 8쪽.

10) 박경신, 앞의 논문, 79쪽.

11) 특히 박경신의 논문은 <변강쇠가>와 무속제의 사이의 관계를 매우 설득력 있게 제

는 여전히 ‘기원론’에 대한 것일 뿐 ‘구조론’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 형성 과정의 특이성이 서사 구조에 안착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지는 못한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 갈등론의 입장에서 <변강쇠가>의 구성을 설명한 경우이다. 이는 특별히 옹녀라는 하층 여성의 삶에 주목하고 있다. 가령, 박일용은 이 작품의 후반부를 ‘천민신분으로의 전략’에 대한 상징으로 읽고, 강쇠의 저주란 그런 전략을 회구하지 않는 옹녀의 안간힘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았다.¹²⁾ 최혜진은 치상 과정에서 중, 초라니, 풍각쟁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불건강한 삶의 자세와 여성을 성적 유린의 대상으로 파악하려는 잘못된 인식에 대한 징벌”로 보고, 소외된 유랑민인 동시에 성 갈등의 피해자인 여성으로서 옹녀의 삶을 지배하는 봉건사회의 모순이 강쇠의 원혼을 공포의 대상으로 변화시켰다고 했다.¹³⁾ 정지영도 강쇠의 저주가 위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이 시체에 부착되는 것은 “가부장적 질서의 강건함, 광범위함” 등의 형상화로 이해했다.¹⁴⁾ 사회 갈등론에 입각한 이러한 해석은 옹녀의 삶에 드리운 이중의 고난, 즉 하층민의 사회적 고난과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고난이 <변강쇠가>에서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해석을 통해 <변강쇠가>의 서사적 혼란이 모두 해명되었다고 보기엔 미흡한 점이 있다. 가령, 치상하러 온 사람들이 변강쇠의 원혼을 달래고 그의 원한에 공감한

시했다. 그러나 무속제에 대한 연구자의 선입견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가령, 부정적인 인물인 변강쇠가 장승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으니 <변강쇠가>의 전반부는 ‘장승 신화(神話)’라는 판단(박경신, 앞의 논문, 63쪽)은 서사 전개의 ‘결과’에 ‘의도’를 개입시켜 해석한 탓이라고 본다.

12) 박일용, 앞의 논문, 191~193쪽.

13) 최혜진, 앞의 논문, 406~410쪽.

14) 정지영, 앞의 논문, 364쪽.

다든지, 변강쇠의 저주가 신분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것 등은 사회 갈등 담론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미의식의 산출 과정으로 <변강쇠가>의 구성을 설명한 경우이다. 이는 ‘기괴미’에 집중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령, 김종철은 용녀의 이중성이나, 뒤뜰린 인물인 변강쇠에 대한 징치가 온전하지 못한 채 변강쇠의 저주가 위력을 발휘하여 결국 시체를 갈아서 처리해 버리는 것 등은 이 작품이 ‘기괴미’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¹⁵⁾ 서유석도 정상적이지 않고 낯설고 이상한 상태를 기괴로 보고, <변강쇠가>에서 신체, 죽음, 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공포와 웃음이 교차되고 비종결형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점 등에서 기괴성이 구현된다고 보았다.¹⁶⁾ 이주영은 <변강쇠가>의 갈등 구조의 핵심이 ‘산 자들에게 달라붙은 죽은 자의 몸’으로 귀결된다면서, 이런 갈등 구조는 ‘불확실성의 악으로의 치환’과 ‘불안과 공포의 심리적 현실’등을 담아낸다고 보았다.¹⁷⁾ <변강쇠가>에서 구성의 특이성을 ‘기괴미’의 지향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이런 논의들은 문학사에서 <변강쇠가>의 독특한 위상을 잘 간파했다는 점, 그리고 이른 바 ‘기괴적 사실주의’¹⁸⁾라는 이 작품의 남다른 성취를 해명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

15) 김종철(1993), 김종철, 『<변강쇠가>와 기괴미』,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47~82쪽. 재수록. 이하 김종철의 논문은 이 책에서 인용.

16) 서유석, 앞의 논문, 14~71쪽.

17) 이주영(2009), 앞의 논문, 64쪽.

18) 성현경은 바흐친의 이론을 원용하여 “축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민중문화를 문학에 표현한 심미적 양식을 기괴적 사실주의(Grotesque realism)”라 정리하고 그 구체적인 양상을 이명선 고사본에서 확인하고 이를 다른 판소리 문학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성현경, 『춘향전론 2 - <이고본 춘향전>의 축제적 구조와 의미, 문체와 작자 - 』, 『한국옛소설론』, 새문사, 1995, 418~465쪽. 서유석의 논문에서 이는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성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일탈적인 서사 전개를 통해 기괴미가 추구된다는 분석은 <변강쇠가>의 미적 지향은 설명할 수 있어도, 기괴미를 통해 환기되거나 소통되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구체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 과제를 남기고 있다.¹⁹⁾ 텍스트 안에서 논리가 완결되지 않거나, 서로 상충되는 논리가 전개될 경우를 모두 ‘기괴미’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괴미를 환기시키는 ‘모순’이 어떻게 현실의 한 국면을 진실되게 형상화하는 것인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변강쇠가>의 성 담론에 대한 논의는 구조에 대한 분석과 맞물리며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서사 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장승 동티 사건을 기점으로 전반부에서 일탈적 인물에 대한 징치가 정당화되었지만, 후반부에서는 다시 일탈적 인물이 장승만큼이나 위력을 발휘한다. 작품의 결말에서 변강쇠의 시체가 같이질을 당했으니 부정한 인물의 패배가 확정되었고, 징음(懲淫)의 논리가 완결되었으며, 공동체의 권위가 존중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결과론적인 분석이다. 오히려 같이질이라는 추레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만큼 변강쇠라는 일탈적 인물 앞에서 공동체의 권위와 위력은 왜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변강쇠가>를 음란에 대한 징계와 교화의 서사로 이해해서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신분이나 성별에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집중하여 형상화한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필자는 <변강쇠가>를 조선 후기 향촌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본격적인 성 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판단한다. 즉 개인

19) 가령, 김종철은 강쇠에 대한 징치로써 작품이 매듭지어지지 않는 까닭이나 강쇠가 원혼이 되어 현실계의 인물들을 놓아주지 않아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 점에서 기괴미가 창출된다고 보았다. 서사 구조에 대한 이런 의문들을 해명하지 않은 채 기괴미라는 효과만을 강조하게 되면, 연구의 방향이 편승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종철, 앞의 책, 253쪽.

의 성적 특징을 ‘음란함’으로 간주하여 억압하려는 공동체의 입장과 이에 항거하는 개인의 입장 사이에서 빚어지는 긴장을 <변강쇠가>의 서사가 담고 있다고 간주함으로써, 일탈적으로 보이는 서사 구조를 해명하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변강쇠가>를 성과 성욕에 대한 문명론적 성찰을 담은 작품으로 바라보는 논의가 그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연구사 초기에 이국자는 <변강쇠가>를 민중 생활상의 반영으로 보는 연구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석골의 사랑 장면을 모든 문명의 간섭을 벗어나 생명의 부름에 호응하는 에로스 정신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했다.²⁰⁾ 윤분희는 상부살에서 여성의 육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발견된다고 하였다.²¹⁾ 또한 정지영은 유교적 이상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악의 상징으로 음란한 여성이 설정된 것은 아닌지²²⁾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문명론적 논의들은 여성 성(性)과 성욕 일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로써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오도하려는 향유층의 서사 전략을 노출하는 성과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편으로는 너무 포괄적인 수준의 분석이거나 기존의 사회 반영론에서 도출되었던 결론이 반복되는 경향도 있다. 연구사에서 제시되었던 구체적인 문제들 가령, 옹녀의 이중성이나 변강쇠 저주의 원동력, 서사 전후반의 유기성 등이 온전히 해명되었다고 하기엔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변강쇠가>의 서사를 성과 성욕에 대한 문학적 담론으로 간주하고, 그것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

20) 이국자(1985), 157쪽.

21) 윤분희(1998), 327~335쪽.

22) 정지영(2003), 358쪽.

<변강쇠가>의 전반부를 이루는 옹녀의 퇴출과 변강쇠의 장승 동티 사건 등이 성과 성욕에 대한 공동체의 특수한 입장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고, 나아가 후반부에서 변강쇠를 치상하면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사건들 즉 변강쇠의 저주도 전반부를 해명했던 성 담론의 연장선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설명하겠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기존 연구자들이 주장했던 기괴미나 치상 과정의 축제성 등도 새롭게 조명되고, 무엇보다 <변강쇠가>의 서사적 모순 문제도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지하다시피 현전하는 <변강쇠가> 사설은 모두 신재효본으로 인정되는데, 같이질 사설까지 모두 있는 ‘성두본’을 해제한 텍스트²³⁾를 대본으로 삼는다.

2. 성과 성욕에 대한 공동체의 공포

평안도 월경촌에 살던 옹녀가 황해 평안 양도에서 퇴출되는 것은 그녀의 청상살 때문이라고 제시된다. 즉 옹녀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죽었고, 그래서 황해도와 평안도가 여인국이 되리라는 사람들의 두려움에 옹녀가 쫓겨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간 연구자들은 실제로 옹녀의 남편들이 죽은 원인이 옹녀와 관련이 없다는 점²⁴⁾을 들어 사회 위기의 원인을 오도하고 기존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옹녀가 제시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23) 김태준 역주, 『홍부전/변강쇠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이하 텍스트 인용 쪽수는 이 책의 것이다.

24) 옹녀의 남편들은 급상한, 화류병, 문둥병에 걸려 죽거나, 벼락 맞아 죽고, 대적으로 포도청에 떨어지고, 비상 먹고 죽었다.

이런 현상에서 여성의 육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유효된다고 하였다.

이런 분석은 옹녀의 처지를 이해하는 데에 타당하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이 작품이 반사회적 인물에 대한 공동체의 경고만을 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작품의 후반부에서 반사회적 인물인 변강쇠에 대한 장승의 징치는 완성되지 못한 채, 그의 저주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의 존속을 해치는 존재에 대한 징벌의 정당성과 능력은 의심되기 때문이다. 변강쇠의 시체를 보거나 만진 온갖 인물 군상들은 아예 죽거나 시체와 땅에 달라붙는 등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장면화된다. 그리하여 호색한인데다가 나태하기 짝이 없으며 장승으로 상징되는 공동체 규범의 권위를 무시하는 뒤틀린 인물인 변강쇠 또한 건전한 공동체에 비견되는 위력을 지닌 실체임이 드러난다.

옹녀는 쫓겨났고 변강쇠의 시체는 같이질을 당했으나 결국 사회적 위기는 극복해야만 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체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징벌의 당위성은 압도적이지 않고 자신감은 미약하게 제시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 가령 옹녀의 경우 양서 지방에서 쫓겨나오면서 온갖 치장을 한 채 “어허, 인심 흉악하다. 황·평 양서 아니면 살 데가 없겠느냐. 삼남 좃은 더 좋다더라.”²⁵⁾라고 악을 쓴다.

체제 유지의 논리에 비정상적인 개인이 승복하여 교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는 변강쇠의 처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변강쇠를 죽이기 위해 모인 많은 장승신들은 온갖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장승을 화장한 죄인 줄 저도 알고 남도 알아 캐히 징계가 될” 수단으로 수많은 병을 강쇠의 몸에 바르고, 그로 하여금 고통 속에 죽게 한다. 그러나 변강쇠가 죽음에 이르러 한탄하는 것은 옹녀와의 이별이지 장승을 패어 땀 ‘죄’가 아니

25) <변강쇠가>, 251쪽.

다. 변강쇠의 죽음을 통해 장승을 세우는 공동체 규범의 권위를 남도 알게 하겠다는 목적도 달성되지 못한다. 변강쇠를 치상하러 온 온갖 인물들은 변강쇠만큼이나 음란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아예 변강쇠의 원통함을 달래고 위로할 뿐 그가 죽게 된 사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만큼 변강쇠에 대한 징계는 단지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생물학적 차원에서 그쳤을 뿐이고, 변강쇠의 욕망과 가치관을 바꾸지도 못했고 그것이 부정적이라는 가치 판단을 이야기세계 안에 유포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이처럼 옹녀와 변강쇠를 음란한 사람으로 특정하고 징벌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성공했을 뿐이지, 그 과정에서 음란함보다 월등한 도덕적 권위나 역량이 과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옹녀와 변강쇠라는 음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월경촌이라는 지역 공동체와 장승으로 상징되는 공동체 규범의 권위를 존속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변강쇠가>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공동체 운영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 옹색함은 처리 대상이었던 옹녀와 변강쇠의 성적 특징, 음란함으로 치부되었던 성과 성욕에 대한 공포에 맞닿아 있다.

애초에 상부살이 넘치는 음란한 여성 옹녀를 쫓아냈던 데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 옹녀는 열다섯부터 서방을 얻어 스무 살에 얻은 서방까지 해마다 죽었다. 이는 흉악한 소문을 자아냈지만 여전히 남자들은 죽어나간다.

2, 3년씩 걸러 가며 상부를 당할지라도 소문이 흉악할텐데 한 해에 하나씩을 전례로 처치하되, 이것은 남이 아는 기동서방, 그 다음은 셋서방, 애부, 거드모리, 새호루기, 입 한 번 맞춘 놈, 젓 한 번 권 놈, 눈 흘레한 놈, 손만져 본 놈, 심지어 치마귀에 잠시 사정을 일른 한 놈까지 모두 결단을 내는데, 한 달에 한 못을 넘겨, 일년에 한 묶음 한 동 일곱 못, 윤달이 든 해면 두 동 못수 대고 씻어낼제, 어떻게 쓸었던지 삼십 리 안팎 상투 올린 사나이

는 고사하고 열다섯 넘은 총각도 없어 계집이 밭을 갈고 처녀가 짚을 이니²⁶⁾

그녀와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합법적인 부부 관계이든 그렇지 않든, 농도 짙은 성행위이든 그렇지 않든 남자들은 죽어나간다. 만약 옹녀가 음란하고, 상부살까지 있다면 다른 남자들이 그녀를 거부하면 된다. 그러면 마을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성적 매력 앞에서 남성들은 자기 주도권을 상실한다. 그리하여 성적 매력 앞에서 이성적이지 못했던 그들은 모두 죽음을 맞고, 심지어 벼락맞아 죽은 것까지 모두 옹녀의 탓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남성들의 선택은 은폐되고, 옹녀의 성적 자질은 ‘음란함’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편파적 이해의 바탕엔 성과 성욕에 대한 공포가 놓여 있다. 이 두려움의 한 견에는 여성의 성적 매력 앞에서 남성은 이성적인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남성 성에 대한 자학적인 입장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 견에는 성적으로 매력 있는 여성 또는 성욕이 강한 여성을 정상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괴물로 취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놓여 있다. 여성 성욕은 후천적인 것이 아니며, 통제될 수도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변강쇠가>의 이야기세계에서 마을 사람들이 옹녀를 통제하거나 교화하지 않고 마을에서 퇴출시키는 ‘사회적 살인’으로써 대응하는 것은 여성 성에 대한 문명 공동체의 두려움이 이 서사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음란한 여성’ 옹녀를 쫓아내는 데에는 괴물이라는 비정상적인 것과 스스로를 격리함으로써 정상성을 유지하려는 문명사회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성적 매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성욕에 충실한 사람을 괴물로 취급하는 공포 담론은 변강쇠의 징치 과정에서도 반복된다. 청석골에서의 만남 장

26) <변강쇠가>, 249~251쪽.

면이나 이후의 살림살이 장면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옹녀만큼이나 변강쇠 또한 자신의 성과 성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죽음을 목전에 둔 변강쇠가 남긴 유언이나 죽음을 맞이하는 행위에 근거하여 판단하자면, 변강쇠의 원통함이란 결국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수절을 당부했고, 아내의 성기를 움켜 쥐고 일어서서 스스로 거대한 ‘성기’ 형태를 하고서 죽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그가 옹녀만큼이나 성욕에 경도되어 있으며, 남성성의 화신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변강쇠가>는 바로 그런 성욕을 사회적 불건전함의 표지로 삼아 그를 괴물로 취급한다. 변강쇠는 옹녀의 막강한 음욕을 감당할 만한 음란한 남성으로 등장한다. 강한 성적 능력을 지닌 만큼, 그는 건전한 노동의욕이나 사회성이 없는 인물이다. 성욕만으로 꾸려진 이 비정상적인 가정은 그러므로 옹녀의 생활력에도 불구하고 점차 사회에서 소외된다. 결국 정상적인 사회적 소통이 미치지 않는 막다른 곳이라 할 지리산 산중에서 그들은 살게 된다. 공간의 차원에서 진행된 배척과 소외의 과정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욕이 다른 인성들과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처음에 옹녀가 벌어들인 돈을 강쇠는 노름과 술 등으로 탕진하고 싸움을 벌이더니 급기야 나무를 해오라는 아내의 요구에 장승을 뽑아온다. 변강쇠는 아무런 삶의 지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쾌락의 원칙에만 충실하다. 그러므로 “낮이면 잠만 자고 밤이면 배만 타”는 그에게 장승으로 대변되는 공동체의 권위와 규범 등은 애초에 의미가 없었고, 이러한 반사회성이 옹녀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 점차 폭로된 것이다.

이처럼 <변강쇠가>에서 성욕은 변강쇠의 삶을 통해 인간의 여러 욕망들 중의 하나로만 다루어질 수 없다고 제시된다. 그것은 성실, 근면, 절제 등 공동체가 인정하는 긍정적인 자질과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앞서 월경촌의 남성들이 용녀의 성적 매력 앞에서 무기력했던 것처럼, 강쇠의 성욕 앞에서 강쇠가 따라야 할 모든 긍정적인 규범들을 무기력해진다. 그는 스스로를 ‘오입쟁이’로 알고 그러하기에 나무 지게 따위를 지는 것을 꺼려한다. 그리하여 강한 남성 성을 지닌 변강쇠는 용녀처럼 반사회적인 인물, 곧 괴물로 취급받게 된다.

변강쇠가 지닌 ‘괴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 깃든 공격성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은 역시나 장승을 때어 때는 사건이다. 강쇠의 손에서 공공성의 상징인 장승은 뽑히고 쪼개어져서 개인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불살라졌다. 성욕은 강쇠의 불한당 기질, 정상적인 사회 규범에 순응하지 않고 또한 사회 규범으로써 포섭될 수도 없을 불건전성과 반사회성의 원천으로 간주된다.

아무런 현실적 인과도 없는 죽음조차 용녀의 탓으로 몰아 그녀를 쫓아냈던 마을 사람들의 입장이 합리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장승을 뽑아다가 댐 것에 대한 징치 또한 매우 감정적인 면이 있다. 용녀의 음란함 때문에 모든 남성들이 죽어갈 것이라고 마을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강쇠의 나태하고 불건전한 오입쟁이 기질 때문에 모든 장승들이 화를 입을 것이라고 장승들은 분노한다. 그리하여 변강쇠에 대한 징치는, 용녀에게 내려졌던 것처럼, 현재의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미래의 위협에 대한 방제(防除)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장승들은 변강쇠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기보다는 ‘본보기성 징벌’로써 ‘감정적인 제재’를 한다. 이처럼 과도한 처벌의 밑바닥에는, 강쇠의 반사회적인 행태의 원천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인 성욕에 대한 공포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장승들이 쏟아 부은 온갖 종류의 질병은 바로 통제될 수 없는 욕망으로서의 성욕, 그리고 그런 성욕의 화신으로서만 존재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개인에 대한 증오의 산물이다. 그리하여 치료 불가능한 육체는

그 자체로 변강쇠의 교화 불가능한 인성에 대한 은유이며, 고름이 배어나오는 흉측한 모습은 괴물로서의 정체에 대한 형상화이다. 불건전한 가치관과 생활 태도에 대한 공동체의 혐오가 이런 형상들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처럼 옹녀의 퇴출과 변강쇠의 징치라는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빚어졌지만 성과 성욕에 대한 공동체의 공포를 담아내고 있다. 두 사건은 병렬됨으로써 인간은 성과 성욕에 경도될 수 있고, 그런 인간은 괴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공동체의 입장을 풍성하게 제시한다. 옹녀의 퇴출 사건이 여성 성에 대한 공동체의 자학적 입장을 드러낸다면, 변강쇠의 징치 사건은 성욕과 다른 인성 그리고 여러 건전한 규범들 사이의 관계를 드러낸다. 두 사건의 심층엔 모두 육체적 성과 성욕에 대해 인간의 이성적 통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여기에 경도되면 개인과 공동체가 파멸하고 말 것이라는 공포 담론이 놓여 있다.

3. 공동체의 폭력에 대한 개인의 원한

기존 논의에서 후반부 서사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강쇠의 저주 문제였다. 일탈적인 인물의 부정한 저주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변강쇠> 서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왜 <변강쇠>는 강쇠에 대한 징치로 마무리되지 않고 이야기세계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형상화된 변강쇠의 저주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지, 과연 그 위력의 원천은 무엇인지, 나아가 저주의 장면이 축제의 양상을 띠는 까닭은 무엇인지 등이 논란거리였다.

그러나 후반부의 서사를 아이러니로 이해하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 연구자들 또한 옹녀와 변강쇠를 ‘괴물’로 보는 시선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마을에서 퇴출된 옹녀나 혐오스럽게 죽어야 했던 강쇠의 입장에서 보자면, 후반부는 공동체의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원한과 그것의 의미가 드러나는 장면으로 이해된다.

<변강쇠가>의 후반부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단초는 변강쇠가 죽는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경상도 함양의 장승을 꽤어 댐 방에서 사랑을 나누는 뒤, 다음날 저녁에 변강쇠는 장승들이 온갖 병을 발라서 온몸에 부스럼이 낄자하고 피고름이 독한 냄새를 풍기게 되었다. 옹녀는 겁이 나서 집을 치고 약을 쓰지만 결국 변강쇠는 죽게 된다.

의원이 간 연후에 침약의 힘이었는지 목신의 조화인지 강쇠가 말을 하여, 여인의 옥수를 덤뱍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자네는 양서 사람이고 내 몸은 삼남 사람으로, 하늘이 지시하고 귀신이 중매하여 오다가다 맺은 연분이나 죽자살자 깊은 맹세는 단산에 봉황이오 녹수에 원앙과 같다. 잠시도 이별하지 말고 백년해로 하겠더니 하룻밤 사이에 얻은 병이 백 가지 약으로도 효험이 없어 청춘소년 이내 몸이 황천 먼 길로 가게 되었으니 생기사귀라는 성인의 말씀을 나는 설워하지 않거니와 생리사별 자네 정경은 차마 어찌 보겠는가. …(중략)… 이 몸이 죽거들랑 염습하고 입관하기를 자네가 손수하고, 출상할 때 상여배행이며 시묘 살이 조석 상식이며 삼년상을 지낸 후에 비단 수건 목을 잘라 저승으로 찾아오면 이생에 미진하나 연분 끊어진 인연을 이어 다시 짝이 되겠지만, 내가 지금 죽은 후에 사나이로 명색하고 열 살 아래 아이라도 내 몸에 손대거나 집 근처에 얼른하면 즉각 급살할 것이니 부디부디 그리하소.”

속웃 아구대에 손길을 풀쭉 넣어 여인의 아래를 쥐고 으드득 힘주더니 불끈 일어나서 우뚝 서면서 건장한 두 다리는 화살을 쏘려는듯 비정비팔 빗디디고, 바위 같은 두 주먹은 시왕전에 문지기인듯 눈 위에 높이 들고, 경췌덩이 같은 눈은 홍문연 변쾌인듯 찢어지게 부릅뜨고 상투를 풀어 산발허고, 혀를 빼어 길게 물고, 짚둥우리 같이 부은 몸에 피고름이 낄자하고 주장군은

그저 뻗뻗하며 목구멍에 숨소리가 딸각하고 코구멍에 찬바람이 왜 생문방이
앞을 막고 장승 죽음 하였구나.²⁷⁾

강쇠의 죽음 장면은 그의 유언과 장승 죽음에 대한 묘사로 채워져 있다. 강쇠가 죽으면서까지도 아내의 성기를 움켜쥐고, ‘주장군’을 뻗뻗이 세우며 아내에 대한 성적 집착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죽음을 징벌의 완수로 볼 수 없다. 변강쇠는 장승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만 결코 이념적으로 교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쇠가 죽는 장면은 반사회적인 인물에 대한 공동체의 혐오를 보여주는 동시에, 바로 그 혐오의 폭력성을 전시하기도 한다. 강쇠가 죽어가는 과정, 육체에 병이 스미고 문드러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제시됨으로써 공동체가 개인에게 저지르는 폭력의 실상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발의 성격은 강쇠의 시체가 짓는 장승 모양으로써 강화된다. 가령 땀득이는 강쇠의 시체에서 다음과 같이 ‘공격성’을 읽어내기도 한다.

“그 제어미를 할 송장이 어떻게 죽었다 말시오.”

불끈 일어서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놈이 연해 해석하여,

“누를 콧 치려고 두 다리를 벌디디고, 누를 탁 차려고 두 눈을 딱 부릅떴소. 예게, 그것이 용병이거든 그도 그렇겠지. 집에 갈퀴 있소?”²⁸⁾

땀득이는 강쇠가 ‘누군가를 콧 치려고, 또는 누군가를 탁 차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비정비팔(非丁非八) 꼴꼴이 서서 장승 모양으로 죽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공격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회 일반에 대한

27) <변강쇠가>, 299~301쪽.

28) <변강쇠가>, 327쪽.

무분별한 반발심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강쇠는 자신의 죽음이 누구 때문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쇠의 시체가 ‘주장군’을 뺏듯이 세운 채 장승의 모양 또는 거대한 성기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상징으로 이해된다. 서서 죽은 강쇠는 ‘파괴자’의 형상(장승)으로 파괴의 원인(성기)과 결과(죽음)를 과시함으로써 파괴의 명분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처럼 강쇠의 장승 죽음은 이중의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의 저주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까닭이나 과정도 이 죽음에서부터 해명될 수 있다. 강쇠는 죽기 전에는 육신의 제약을 받았지만 이제 그는 죽었기에 그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므로 강쇠의 저주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강쇠라는 개인의 죽음에 드리운 공동체의 명분에 강쇠가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의 죽음이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이념적 긴장을 형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쇠의 죽음에서 저항의 명분을 읽어낸다고 하여도, 그것이 이야기세계 안에서 동의되지 못한다면 강쇠의 저주는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강쇠의 죽음은 그가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을 뿐이다. 그 가능성이 사람들의 죽음과 ‘달라불기’라는 비정상적인 사건들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던 까닭, 다시 말해 변강쇠의 저주가 위력을 발휘하는 까닭은, 그의 원한에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변강쇠의 원한에 공감하게 되는 배경에는 성과 규범 사이의 딜레마가 자리잡고 있다. 옹녀의 상황은 이 딜레마를 가장 잘 보여준다. 강쇠는 자신의 시신을 오직 아내만이 손댈 수 있지 열 살 아래 아이라도 사내가 손을 대거나 집 근처에 얼씬하면 급살을 내겠다고 했다. 이 저주는 옹녀에 대한 강쇠의 성적 욕망, 가부장제의 남성들이 지닌 자연스런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이 집착에서 강쇠는 옹녀의 수절만이 아니라, 옹녀

의 치상까지 주문했다. 장례를 옹녀 혼자서 치르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옹녀는 강쇠가 죽자마자 ‘수절’을 대가로 삼아 ‘치상’을 치르려 한다. 남편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유언을 저버려야 하는 이 모순된 상황은 성과 규범 사이의 긴장을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옹녀가 감당해야 할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 옹녀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 까닭은 그녀가 강쇠의 ‘아내’였다는 점 때문이자 동시에 다른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옹녀의 딜레마는 이렇게 그녀의 사회적 정체와 생물학적 정체 사이에 주어진다. 그리고 이점은 옹녀의 ‘남편’이었기에 나무를 하러 갔지만, 성적 능력과 성욕이 강했기에 사회적 규범에 일탈적이었던 강쇠의 상황과 유사하고 또한 강쇠를 치상하러 온 사람들과도 유사하다. 즉, 강쇠를 치상하러 온 사람들도 모두 강쇠처럼 음욕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중, 초라니, 풍각쟁이들, 그리고 뎀득이가 강쇠를 치상하려고 덤벼든 까닭은 모두 옹녀를 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사내들의 성욕은 비록 그것이 본능의 발로라 할지라도 죽은 낭군의 시신을 처리함으로써 그 아내를 취하려 한다는 점에서 역시나 윤리적 딜레마에 노출된다.

강쇠의 치상 문제가 성과 성욕 그리고 사회적 규범 사이에 드리운 딜레마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음은 여러 곳에서 노출된다. 가령, 처음으로 치상하겠다고 나섰던 중이 음욕을 견디다 못해 옹녀에게 덤벼들자, 옹녀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인이 책망하여,

“바빠 먹으면 목이 메고 급히 더우면 쉬 식는 것이니, 여러 해 주린 색삼 아무리 그러하지만, 죽은 가장을 방에 두고 새낭군과 그 노릇이 내 인사에 되겠는가. 다 되어 가는 일이니 마음을 조금 진정하소.”²⁹⁾

옹녀는 스스로 남성을 유혹해 놓고도 그의 색심이 인사에 맞지 않는 일임을 지적하고 있다. 치상과 혼인의 차례를 지적하는 옹녀의 타박은 음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다운 일’에 맞지 않기는 옹녀에게 덤벼든 모든 사내들이 마찬가지이다. 가령 뽕득이는 옹녀를 차지하겠다고 덤벼들었다가 죽은 다섯 명의 풍각쟁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략)…큰 동네 파시평에 무리 지어 다니면서 풍류로 적고 사니 눈치도 환할 테요 경계도 알 터인데, 송장을 쳐 낸대도 계집은 하나뿐, 누구 혼자 좋은 꼴 보자고 한꺼번에 달려들어, 한날 한시 못밧 송장 여덟 송장 자기 설움 다 원통한 송장이라. …(후략)…”³⁰⁾

풍각장이 다섯 명의 죽음은 이 치상에 내재된 윤리적 긴장을 드러낸다. 그것은 현실 규범과 성욕 사이의 긴장, 양립하기 어려운 딜레마이다. 변강쇠의 저주는 옹녀의 딜레마를 유도함으로써 현실에서 성과 성욕에 대한 혼란상을 폭로하고, 그것이 먼저 죽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욕을 지닌 인간 보편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옹녀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성과 성욕의 문제에서 사회 규범과 언제라도 충돌할 수 있음을 치상 과정은 윤리적 딜레마로써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변강쇠의 저주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의미를 추론하게 한다.

먼저, 옹녀를 퇴출하거나 강쇠를 죽여야 했던 공동체의 입장, 즉 사회 존속의 논리와 공동체 규범의 권위 등이 부당했음을 드러낸다. 애초에 일

29) <변강쇠가> 307~309쪽.

30) <변강쇠가> 357쪽.

경춘 공동체에서 옹녀를 퇴출했던 까닭은 그녀가 ‘음란한 여성’이라는 점이었다. 음란한 여성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절대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강쇠의 죽음 앞에서 그녀의 성적 매력은 오히려 윤리적 의무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 수단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그녀의 성은 음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존속의 규범을 지탱하는 방편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변강쇠의 죽음은 쾌락밖에 모르는 그의 뒤틀린 성품 때문이라고 제시되었으나, 치상 과정에서 징벌의 정당성은 부정된다. 즉 반사회적 표지로 간주되었던 음욕은 실상 모든 남성에게 일반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또한 ‘치상’이라는 윤리적 행위를 위한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강쇠의 저주는 성과 성욕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드러냄으로써 옹녀의 퇴출과 강쇠의 죽음이 부당했음을 치상 과정에서 암시한다. 그들의 처리 과정에는 성과 성욕에 대한 공동체 규범의 폭력성이 편파적으로 개입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치상 과정에 내재된 윤리적 딜레마에서는 변강쇠의 저주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근본적인 까닭도 제시된다. 옹녀에 대한 음심으로 변강쇠를 치상하러 온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인식하던 그렇지 못하던 성과 성욕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앞에서 밝혔는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변강쇠를 ‘원혼’으로 파악한다. 또한 변강쇠를 치상하려다가 죽은 사람들마저도 원통하다고 판단한다. 그들은 변강쇠의 죽음에서 죽어 마땅한 죄를 읽고 그 징벌의 정당성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억울함을 거론하며 변강쇠를 위로하려 한다.

...(전략)... 뎀득이가 그리해도 서울 있는 사람이라, 애절히 사정으로 송장에게 비는 목이 의지하여 들을만 했다.

“천고에 의기남자의 원통히 죽은 혼이 지기지우 못 만나면 위로할 이 뉘

있으리. 역수의 찬바람에 연태자를 하직하고 함양에 죽었으니 험객 형가는 불쌍하고, 계명산 밝은 달에 우미인을 이별하고 오강에 자문하니 패왕 항적 가련하다. 이 세상에 변서방은 험기 있는 남자로서 술먹기에 접장이요 화방에 패두시니, 간 데마다 이름 있고 사람마다 무서워한다. 꽃같은 저 미인과 백 년을 살겠더니, 이슬 같은 목숨이 일조에 돌아가니 원통하고 분한 마음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뺨뺨이 선 장승 송장. 중 동지 지내 신세 부처님의 제자로서 선공부 경문 외위 계행을 닦았다면, 흰구름 푸른 피에 간 데마다 도방이요, 비단 가사 연화탑에 열반하면 부처 될터인데, 잠시 음욕 못 금하여 비명횡사 거적 송장. …(중략)… 이생의 원통한 마음을 다 버리고 지부명황 찾아가서 질질이 원정하여 후생의 복을 타서, 부귀가에 다시 생겨 평생 행락하게 하면, 당신네 신체들은 청산에 터를 잡아 각각 후장한 연후에 해마다 기일 돌아오면, 내가 봉사할 것이니 제박 덕분 떨어지오.”

애절히 빈 연후에 네 높이 불끈 일어서니 모두 다 떨어졌다.³¹⁾

땀득이는 변강쇠의 죽음에서 일상적인 욕망이 부당하게 좌절된 원한을 읽어낸다. 그렇게 땀득이가 여러 시신들을 ‘원혼’으로 규정하고 나서야 시체와 땅에 달라붙었던 것들이 떨어졌다. 땀득이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처음부터 변강쇠의 눈을 보지 않았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만큼 저주의 위력은 변강쇠의 눈, 그 시선에 담긴 원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땀득이가 저주의 위력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변강쇠의 원한에 공감하고 연민의 말을 건넸기 때문이다.

땀득이보다 먼저 치상을 하려고 왔던 사람들은 모두 변강쇠의 시신을 마주했기에 죽었다. 이것은 그들이 변강쇠의 죽음에 갖는 원한과 그것의 무서운 위력에 무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지식의 차이와 상관없이, 남성들의 보편적인 욕망이 훼손당한 결과로서 변강쇠의 시신은 존재

31) <변강쇠가>, 355~357쪽.

하고, 사내들은 이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변강쇠의 장승 죽음에서 장승을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죄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성적 관계로서 '결혼'을 유지하려 했던 남성의 욕망이 윤리적 딜레마 속에서 부당하게 죽어야 했던 억울함을 마주하게 된다.³²⁾ 그리하여 개인의 신체와 욕망에 대한 공동체의 규율 권력이 얼마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인 것인지 목격하는 순간은 음욕이라는 자기 파괴의 명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옹녀를 향해 음욕을 숨기지 않았던 중, 초라니, 풍각쟁이들은 모두 죽어야만 한다.³³⁾

음욕을 고백하진 않았지만, 그 명분에 노출된 사람들에게도 저주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시체에 근접함으로써, 그네들은 개인을 옥죄는 공동체 규범의 진실에 근접했고, '달라붙기'라는 공간적 현상이야말로 그네들이 처한 윤리적 혼란과 위기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은유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강쇠가>의 후반부는 성과 성욕에 대한 공동체 규범의 편파성과 공격성에 대한 개인의 원함과 이에 대한 공감을 풀어낸다. 변강쇠의 죽음이 그의 성욕에 대한 공동체의 혐오와 배척의 결과라면, 동시에 그

32) 텨둑이가 변강쇠뿐만 아니라 중, 초라니, 풍각쟁이들 모두를 원혼으로 간주하고 위로하는 것은 시체와 땅이 달라붙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변강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변강쇠 개인에게 발생한 '보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33) 변강쇠의 저주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성 담론은 서구에서 '메두사의 시선'에 대한 해석과 유사하다. 그리스 신화에서 메두사의 시선은 남성들을 공포에 질려 돌로 변하게 한다. 이것은 남성을 상징적으로 거세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지녔다. 이런 신화의 탄생엔 '남성에 의해 억압되고 대상화되었던 여성의 누적된 경험이 그녀 안에 공격성을 배태시키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분출하는 것이 남성을 맹목으로 만들 것'이라는 공감의 배후에 있다.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적 태도를 회의하는 것에서 메두사의 공포스런 시선은 탄생한다는 것이다. '메두사의 시선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이용은, 『타이타스 앤드러니커스』 - 남성에게 던지는 메두사의 시선, 그리고 응시, 『Shakespeare Review』 Vol.34, No.0, 한국세익스피어학회, 1998, 255~285쪽.; 박혜영, 『메두사의 신화와 여성』, 『한국프랑스학논집』 61, 한국프랑스학회, 2008, 283~298쪽.

죽음은 개인의 욕망에 대한 공동체의 공격성을 증거함으로써 새로운 저항의 명분을 제시한다. 이 저항은 치상 과정에 나타나는 윤리적 딜레마에서 구체화된다. 즉 치상이라는 윤리적 행위를 위해 옹녀는 성을 개방해야 하고, 반대로 사내들은 윤리적 행위를 도구로 삼아 여성을 취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윤리적 딜레마 속에서, 옹녀를 퇴출시키고 강쇠를 죽였던 공동체 규범도 실상은 개인의 욕망만큼이나 도구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치상 과정에서 모든 남녀가 윤리적 딜레마에 노출됨으로써 그것이 성욕을 지닌 모든 인간이 처한 보편적인 문제임도 드러난다. 그리하여 강쇠의 시신을 처리하려던 사람들은 강쇠의 시전에서 공동체의 폭력에 부당하게 희생된 개인의 원한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그 원한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음욕에서 파괴의 명분을 확인하게 된다. 이 죽음의 명분 앞에서 그들은 공포를 느끼고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강쇠가>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성과 성욕 그리고 공동체 규범 사이의 긴장을 개인의 욕망에 대한 공동체의 공포와 혐오, 그리고 이 폭력에 대한 개인의 공포로써 형상화한 것이다.

4. 결론: 치상의 축제적 성격

앞서 <변강쇠가>에는, 성과 성욕을 사회 파괴의 요소로 간주하여 공동체가 대응하지만, 그러한 대응에 내재된 폭력성이 개인에게 또 다른 공격성을 배태시킨다는 성 담론이 높여 있음을 분석했다. 결론에서는 그러한 성 담론의 형상화가 축제적 성격을 띠고 있음³⁴⁾을 지적함으로써 <변강쇠

34) 박경신은 무속제의의 '풀이' 뒤에 이어지는 '놀이'의 과정으로 치상 장면을 이해했다. (박경신, 앞의 논문, 69~80쪽). 많은 연구자들은 치상 장면뿐만 아니라 전반부의 음란 사설 등에서 나타나는 <변강쇠가>의 희극적인 면을 중요한 특징으로 삼았다.

가> 성 담론의 의의를 정리하겠다.

<변강쇠가>의 치상 장면은 풍각쟁이를 비롯하여 온갖 유랑 연예인들이 몰려와서 변강쇠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한바탕 놀이를 벌이는 축제의 성격을 띤다. 단지 놀이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강쇠의 저주에 걸려 죽거나 시체와 땅에 들러붙는 비정상적인 상황들도 매우 경쾌하게 제시된다.

온갖 유랑 연예인들이 벌이는 굿판과 놀이판은 변강쇠를 위로하여 저주를 풀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연희의 자리에는 웅좌수, 움생원부터 미천한 사당패의 ‘우는 년’까지 참가함으로써 신분의 위계는 무너진다. 또한 웅녀에게 음욕을 품었던 중이나 도포 입고 안장마에 향청 하인을 데리고 가다가 친구 움생원의 부름에 합석을 했던 웅좌수까지 함께함으로써 도덕의 위계 또한 무너진다.

저주가 실현되는 이 장면들이 축제로서 연출되는 까닭은 성 담론의 사회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즉 <변강쇠가>에서 변강쇠의 저주는 공동체 권력에 대한 저항과 탈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체제성을 구현하는 서사적 매개는 ‘육체’이다. <변강쇠가>에서 육체는 지극히 사적인 성격을 띤다. 웅녀와 변강쇠는 한낮의 청석관에서 서로의 기물을 들여다보며 희롱한다. 멀쩡한 대낮에 청석관의 바위 위에서 벌어지는 성행위에서 그들은 욕망의 대상으로서 서로의 육체, 그중에서도 성기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때의 성기와 육체란 다른 사회적 명분이나 가치에 의해 수식되고 이해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욕의 대상일 뿐이다.

봉건사회에서 신체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 『삼강행실도』가 생생한 그림으로써 안내하듯 충신 효자 열녀 됴의 극치는 결국 자신의 신체를 임금, 부모, 남편의 존속에 희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관념적인 희생이 아니다. 배고픈 임금을 위해 허벅지 살을 도려내고, 아픈 부모를 위해 기꺼이

손가락을 자르고, 남편의 혈통이 순수하게 전해질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몸으로 칼을 맞는 지극히 육체적인 희생이다. 즉, 봉건사회에서 규범의 권위는 궁극적으로는 <변강쇠가>에서 옹녀나 변강쇠에게 공동체가 했던 것처럼 개인의 육체를 속박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변강쇠가>에서 육체는 이와 같은 봉건적 공공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 그냥 육체적인 욕망의 투사체일 뿐이다. 공공성의 상징인 장승은 뽑히고 쪼개어져서 개인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불살라진다. 옹녀가 생계를 위해 ‘들병장사’, ‘막장사’와 같이 매춘에 버금가는 일을 한다. 옹녀는 ‘정조’와 같은 도덕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다. 변강쇠는 자신의 계집에 대해 눈웃음 짓는 놈들을 보기 싫다며 도회 살림을 청산하는 데에 찬성한다. 옹녀의 육체에 대한 변강쇠의 집착을 ‘가부장제적 관념’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옹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강쇠의 집착은 사회문화적 배경보다는 본능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물론 개인의 육체에 대한 공공의 속박은 끈질기다. 장승들은 변강쇠에게 공동체 규범의 권위를 훼손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온갖 병들로 변강쇠의 육신은 고통스럽게 죽는다. 이로써 공공의 속박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체현되었다. 그러나 역으로 그러한 체벌의 과정은 공동체의 속박이 지닌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변강쇠의 육체는 죽었지만, 규범의 권능은 바로 거기까지일 뿐이어서 변강쇠는 교화되지 못했다. 오히려 변강쇠는 저주를 내림으로써 규범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변강쇠의 저주가 위력을 발휘하는 까닭이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서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동체의 폭력,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폭력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명분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파괴의 공포 앞에서

모든 사회적 위계는 허물어진다. 그의 눈빛을 보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고, 그의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모두 땅에 달라붙는다. 이것은 그들 모두가 사회적 규범만으로 살 수 없는 육체적 욕망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저항할 수 없으며, 신분이나 윤리 의식 등이 저주의 효력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변강쇠의 저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오직 그의 원통함이 위로받기만을 갈구한다. 변강쇠의 원통함에 공감함으로써 장승 죽음을 한 변강쇠의 시체를 중심으로 일종의 제의적 공간이 형성된다. 이 공간에서 기존의 규율들은 위력을 잃고, 죽음과 삶의 위계도 불분명해진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변강쇠의 힘에 짓눌리고, 저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구현된다. 즉 축제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나 변강쇠의 치상 과정에서 펼쳐지는 축제적 구조는 아무리 그것이 사회적 속박을 해체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두려움의 산물이자 비일상성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끝내야만 한다. 땀득이는 변강쇠의 원혼을 위로하지만 결국 시체를 토막내고 바위에 갈아버린다. 같이질이 공감과 연민의 연장선 위에 등장했으므로, 같이질을 근거로 치상의 축제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땀득이는 변강쇠를 징계하는 데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저주를 마칠 뿐인 것이다.

변강쇠의 시체가 사라짐으로써 저주가 빚어낸 축제 공동체도 해체된다. 그러나 땀득이가 치상에 성공했음에도 웅녀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이 치상의 의미가 웅녀라는 개인의 새로운 짝짓기가 아니라, 변강쇠의 원통함에 공감하는 저주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웅녀가 애초에 치상의 대가를 제시함으로써 제의의 시작을 알리기는 했지만 치상의 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태준 역주, 『홍부전/변강쇠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 서종문, 『변강쇠歌 研究』,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5, 1~101쪽.
- 박경신, 『무속제의(巫俗祭儀)의 측면에서 본 <변강쇠가>』,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 1~116쪽.
- 이국자, 『변강쇠가 - 해석시론 -』, 『인문논총』 15,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85, 147~178쪽.
- 김종철, 『19C. 판소리사와 <변강쇠가>』, 『고전문학연구』 3, 한국고전문학회, 1986, 90~122쪽.
- 정병현, 『변강쇠가에 나타난 신재효의 현실인식』, 『한국언어문학』 24, 한국언어문학회, 1986, 181~192쪽.
- 전신재, 『<변강쇠가>의 비극성』, 『선청어문』 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103~124쪽.
- 박일용, 『<변강쇠가>의 사회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회, 1991, 170~200쪽.
- 김종철, 『<변강쇠가>의 미적 특질 - 괴기미 추구하고 관련하여 -』, 『판소리연구』 4, 판소리학회, 1993, 275~316쪽.
- 이강엽, 『신재효 <변강쇠가>의 성과 죽음의 문제』, 열상고전연구 6, 열상고전연구회, 1993, 196~223쪽.
- 강진욱, 『변강쇠가 연구 2 - 여성인물의 ‘쫓겨남’을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13, 이화어문학회, 1994, 197~217쪽.
- 성현경, 『춘향전론 2 - <이고본 춘향전>의 축제적 구조와 의미, 문체와 작자 -』, 『한국옛소설론』, 새문사, 1995, 418~465쪽.
- 박관수, 『<변강쇠가>의 음란성 재고』,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319~340쪽.
- 김종철,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 윤분희, 『<변강쇠전>에 나타난 여성인식』, 『판소리연구』 9, 판소리학회, 1998, 325~349쪽.
- 이용은, 『타이투스 앤드러니커스』 - 남성에게 던지는 메두사의 시선, 그리고 응시,

- 『Shakespeare Review』 Vol.34, No.0, 한국셰익스피어학회, 1998, 255~285쪽.
- 최혜진, 「〈변강쇠가〉의 여성중심적 성격」, 『한국민속학』 30, 한국민속학회, 1998, 387~412쪽.
- 김경미, 「고소설 남성 인물의 형상화 - 〈변강쇠가〉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7, 이화어문학회, 1999, 75~91쪽.
- 정인혁, 「〈변강쇠가〉의 구조 연구」, 서강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0, 1~71쪽.
- 서유석, 「〈변강쇠가〉에 나타난 기괴성의 구현 양상과 의미」,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3, 1~100쪽.
- 정지영, 「〈변강쇠전〉-조선후기 성 통제와 하층여성의 삶」, 『역사비평』 65, 역사비평사, 2003, 352~370쪽.
- 정하영, 「〈변강쇠가〉성담론의 기능과 의미」,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167~198쪽.
- 최경환, 「〈변강쇠가〉 연구 -선택과 배치의 담화전략-」, 『어문학논총』,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6, 229~244쪽.
- 김창현, 「〈변강쇠가〉, 땀뚱이의 인물형상과 그 의미」, 『국제어문』 38, 국제어문학회, 2006, 225~253쪽.
- 이주영, 「〈변강쇠가〉에 나타난 강쇠 형상과 그에 대한 적대의 의미」,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2008, 5~33쪽.
- 박혜영, 「메두사의 신화와 여성」, 『한국프랑스학논집』 61, 한국프랑스학회, 2008, 283~298쪽.
- 이상구, 「고소설에 나타난 성담론과 그 지향」, 『어문논총』 50,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105~135쪽.
- 이주영, 「기괴하고 낯선 몸'으로 〈변강쇠가〉 읽기, 고전과 해석 6,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9, 47~75쪽.
- 정환국, 「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253~287쪽.

ABSTRACT

Sexuality in <Byungangsoiga>

Lee, Jeong-Won

It has been an important matter that the narrative of <Byungangsoiga> was not organic. I intended to explain the structure of <Byungangsoiga> as a literal discourse about sexuality.

There was fear for sex and sexual desire of community where Ongnyu was thrown out and Byungangsoi was killed. Because of the fear that a man could not defend himself from a sexual woman, and at last the community must be destroyed, Ongnyu must be expelled from her community. They have treated her a monster and as the same way Byungangsoi was punished. Byungangsoi's powerful sexuality was treated as a sign of social unsoundness. So the communities punished them not for the guilty of present but for the danger of future.

There was a tension between the desire of individual and the violence of community in the second half of <Byungangsoiga>. Byungangsoi did not give up his sexual tenacity with dying. So his death did not mean the success of punishment. Instead his death showed the violence of the community and obtained the cause of resistance. It was through the moral dilemma that the resistance was realized. For the funeral service, Ongnyu the wife of Byungangsoi had to have sexual relationship with a strange man. In this dilemma, the dogma of moral standard was deconstructed.

By the way, the scene of the funeral was very fun and cheerful. Because the curse of Byungangsoi was against the power of community, the social hierarchy was destroyed and the festival was held in the equality of the curse.

Key Words Byungangsoiga, sex, death, morality, dilemma, fear.

논문투고일 : 2011. 3. 31

심사완료일 : 2011. 5. 20

게재확정일 : 2011. 5. 31